

# 왕따, 모두가 나서자



**왕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문재현 외 지음  
살림터 펴냄  
1만2천원

수절이는 학년 짝이다. 첫날부터 어떤 애를 괴롭힐까 벌써 중이다. 드디어 희생양을 발견한 수절이가 100원짜리 동전을 내밀며 말했다. "야, 이거 가지고 빵 사와!" 한성이는 수절이의 눈길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은혜이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너 수절이 얘기가 안 들리냐? 귀머거리?" / "100원으로 어떻게 사와……." 기영이는 한성이를 손가락질하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재성이는 속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가끔 바라보았다. 현수는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책을 읽었다. 그 때 상호가 말했다. "네가 먹을 빵은 내가 사와야지. 왜 한성이한테 시키냐?" 수절이는 상호의 얼굴을 쳐다보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너 죽고 싶냐? 내가 사올래?" 상호의 짜증은 수절이에게만 무서워서 가만히 앉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교사들은 어떻게 다룰까? 요즘 우리 사회의 아이, 부모, 교사들을 가장 절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왕따 문제다. 하지만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의 대책과 프로그램은 없거나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책은 '왕따'를 없애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자 왕따 해결의 매뉴얼을 제시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교사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평화샘 모임에서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제안들은 답이 책을 냈다. 책은 일진문화 현상을 다룬 국내 최초의 단행본 <학교

폭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사를 위한 학교 폭력 예방대책 매뉴얼 <학교 폭력, 멈춰!>에 이은 평화샘 모임의 세 번째 프로젝트다.

왕따는 왕따들의 준말이다. 최고의 따돌림이라는 말이다. 피해자는 극도의 고립감, 좌절감, 불안 등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아이들 중 대다수가 왕따로 인한 것이다. 학교 당국은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회 인식도 문제의 심각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책은 "사회전체가 문제를 인식하고, 어른들

**학교폭력의 뿌리는 '왕따'**  
심각성 인식 결여가 문제  
구체적 방법의 매뉴얼 제시  
사례 모아 현장성 높여

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책은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사회 전체의 왕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재고이다. 왕따 현상이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군대 등 전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심각성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른들의 책임 의지이다. 왕따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어른들은 책임을 미룰 뿐 마음을 모아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교사, 부모, 상담가, 지역사회 구성원 등 모두의 집중적인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 4개의 장과 사례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왕따 문제를



저자는 왕따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전체가 문제를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선생님 반에 왕따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원칙을 함의하고 교사들이 공동 대응하거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 "왕따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피해 아이 상담과 진술서 작성요령, 피해 아이 보호 조치, 피해 아이 부모 상담, 백지 진술서 받기 등 책은 왕따를 발견했을 때 교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의 매뉴얼을 제시한다.

자가 학교에서 일어났던 왕따 사건과 그 해결 과정을 찬찬히 들려준다. 사례를 통해 마음을 모으면 왕따는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학교 폭력은 영긴 실태라와 같다.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얽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책은 학교 폭력에 대한 기존의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 사회의 왕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모델 구성을 통해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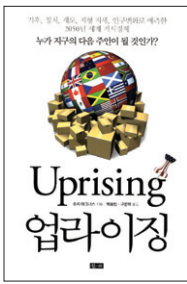
'왕따, 이렇게 해결했어요' 사례모음 편에서는 저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세계경제 승자가 되려면 숫자보다 다가올 '문제' 들에 주목하라

업라이징

조지 매그너스 지음 | 백승민·구본혁 옮김 | 1만6천원



"누가 지구의 다음 주인이 될 것인가?" 책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저자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시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중국과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일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들이 다.

저자는 "중요하다고 해서 모두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셀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아이슈타인의 문구를 책머리에 인용하면서, 미래 세계경제의 승자를 결정하는 조건은 GDP(국민총생산)와 같은 통계적 수치나 선행회귀적인 모델이 제시하는 숫자가 아닌 지형과 지세, 제도와 인식의 개선 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과대평가 및 왜곡될 있는 GDP로 승자를 예

**미래 경제는 GDP보다 환경·고령화 해결해야**

측하는 것은 선부룰 수 있는 일이며, 그 근거로 구매력평가지수의 함정과 국가의 불필요한 시설 확충 및 그에 따른 원상복귀조차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는 GDP와 같은 양적 요인보다는 제도, 인구구조, 지형, 기후 변화와 물 부족 현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인식의 발달과 건전한 제도의 보완에 더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신흥시장 대 미국이라는 구도를 놓고 누가 지구의 다음 주인이 될 것이냐는 주제를 다루면서 2007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과거로 돌아가 유럽 중심의 지난 200년 역사와 경제발전이 2천년 경제사와 정치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짧은 일탈에 불과했는지를 살펴보고,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이 영원히 추락하고 중국이 다시 패권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중국과 신흥시장을 향해 세계경제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고령화와 환경문제 혁신적 문화 창출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특히 고령화문제에 있어서, 인구 당 국민소득이 과거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고령화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신흥국이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와 물 부족 현상 그리고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신흥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신흥시장, 특히 중국을 향해 던지는 경고는 신흥국들과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적 위상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할 유익한 시안을 제시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6~10/2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헤민     | 쌤앤파크스  |
| 2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3  | 깨달음            | 법륜     | 정토출판   |
| 4  | 영원에서 영원으로      | 불필     | 김영사    |
| 5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 만덕, 민현 | 현지공헌지사 |
| 6  |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 정욱     | 공감     |
| 7  | 기도 (내려놓기)      | 법륜     | 정토출판   |
| 8  | 산사는 길다         | 지안     | 불광출판사  |
| 9  | 백일법문           | 성철     | 장경각    |
| 10 | 일심정도 엄불수행      | 정욱     | 비움과소통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조국은 있어도 돌아갈 조국은 없었다

조선 사람

백종원 지음 | 살림터 펴냄 | 1만4천원



을 향하여' 책의 작은 제목들이다. 책은 올해 아흔이 된 재일동포 1세가 귀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재일조선인의 역사다.

"이 책은 복잡다난한 시대를 지나는 '살아남은 자'의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나는 재일조선인 1세로서 우리 세대가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에 대해 나름대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1945년 해방 당시 독립된 조국에 돌아가 애덤 슘

스의 <국부분>을 번역하겠다는 꿈을 꾸던 교토대학 경제학부 학생이었던 저자는, 백발노인이 되어 책한권을 펴내고(2012년) 위와 같은 소의를 밝혔다. <조선사람>의 일본어판이다. 그리고 이번 책은 한국어판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내고 어느덧 아흔이 된 저자는 의주에서 태어나 가족들과 함께 식민의 삶을 살았다. 압록강을 건너 만주국의 수도 선양 교외에 정착한 저자는 장궤린 폭살 사건과 만주사변, 만보산 사건을 목격하며 소년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시절엔 태평양전쟁으로 치닫는 군국주의 아래서 징병과 학도출진으로 학우들과 이별해야 했다. 그리고 대학 시절인 전쟁 말기에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한병대에 구속되어 감옥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이해야 했다.

"일본의 남쪽 규슈 탄광 지대의 지하 깊은 막방에는 지금도 무참히 희생된 수많은 동포들이 원한을 품은 채 파묻혀 있습니다. 재일동포는 이러한 민족 수난의 역사를 전하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조국을 빼앗기고 해방이 되었어도 조국에서 살 수 없었던 재일동포의 힘겨운 역사를 이야기 해준다.



강제 부역에 동원된 조선인

"현재 60만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은 토지나 삶의 기반을 잃고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징용, 징병으로 끌려간 1세들의 후손들이다. 재일조선인 1세는 식민지 시대의 황국식민을 강요당했지만, 해방이 되어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졸지에 국적을 박탈당하고 일본 속의 '난민' 신세가 되었다." 일본에서 출판된 이 책은 원래 재일동포 3세와 4세 그리고 일본 청년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우리 겨레와 재일동포가 지나온 많은 곡절을 엮은 이 책은 암담한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과 만주, 일본에서 살아왔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체험한 한 동포의 증언이다. 저자는 "일제 식민통치 아래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불행은 체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이 재일동포들의 역사와 삶, 그 염원을 이해하는 데 책이 참고가 된다면 지은이로서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반야심경**  
무구자 도인 주해

270자 안에 든 공(空)의 도리를 유가와 도가의 핵심 사상까지 아울러 세상에 던지고 홀연히 사라졌던 무구자 도인!

그리고 우리 시대 최고의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한암대원 선사 강설  
456면 | 22,000원

**중국 위양종(滂仰宗)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의 활발발한 해설**

칠처정심(七處安心), 깨달음의 본성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25종의 수행 과정, 여래장,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문, 능엄신주, 보살의 수행 단계,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50종의 마장 등, 한국불교의 근본경전 중 하나인 『능엄경』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명쾌한 강설

**원학상인 기암명공강설 (상하)**

선화 상인 강설, 각산 정원규 편역  
상권 944쪽, 하권 840쪽 | 각권 42,000원

**일꾼의 천**

오유희 지음  
440면 | 20,000원

**왕자의 권세도, 깨달음조차도 버리고 일을 선택했던 왕자 승통!**

그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불교 문헌결집을 이룩한 문헌전문가요, 평생 강연을 쉬어본 적이 없는 교육자였으며, 다섯 임금을 모시고 국가 경영의 중심에 선 정치가요, 승통으로서 불교 종단의 개혁을 꿈꾼 위대한 개혁가였다.

**'천통이 진통하듯, 비와 이슬이 천지를 적시듯' 과감하고 단호하게 일을 해냈던 일꾼 의천!**